

“看護보조원 모집”속아서 갔다

처참했던 韓國人위안부들의 實相

태평양전쟁당시 「그루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日本에 의해 버마 등 동남아 前線으로 끌려간 韓國인 慰安婦와 慰安부들의 처절한 생활상을 보여 주는 미국정부 공식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미 국무부가 지난 89년 12월 4일자로 비밀부류에서 해제한 이 문서는 美전정정당국 심리전첩이 44년 8월 10일 버마북부 미치노요새 합락 작전때 포로로 잡은 韓國인 慰安부 20명과 44년 8월 10일 버마북부 미치노요새 합락 작전때 포로로 잡은 韓國인 慰安부 20명과 44년 8월 10일 버마북부 미치노요새 합락 작전때 포로로 잡은 韓國인 慰安부 20명과 44년 8월 10일 버마북부 미치노요새 합락 작전때 포로로 잡은 韓國인 慰安부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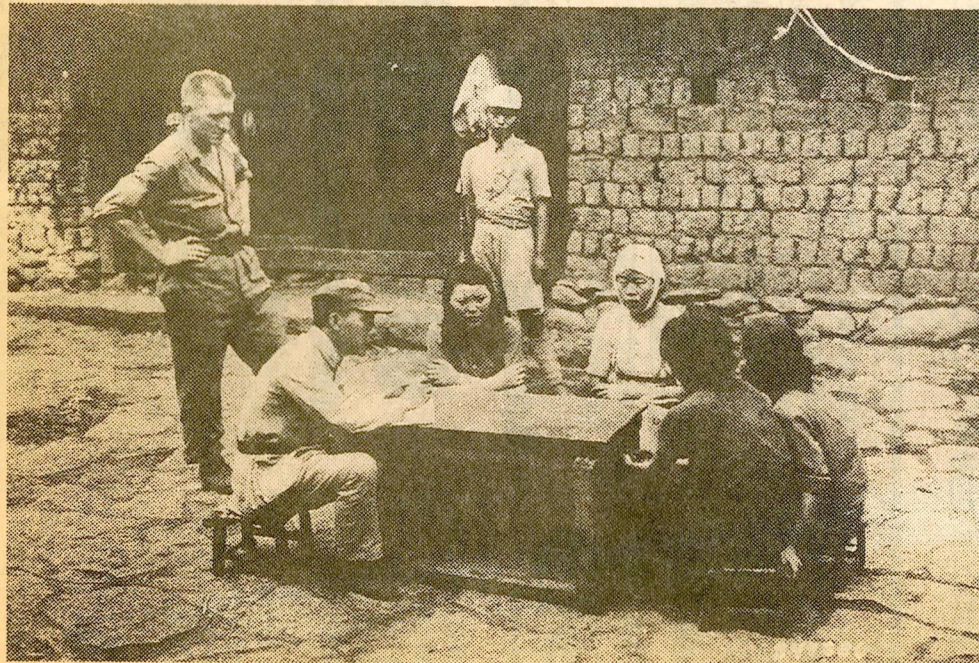
에 일본인 「고용주」와 함께 안부들은 옛날 학교 건물에 살았다. 이곳에서부터 그 있던 커다란 2층 건물에 들은 버마의 각지, 즉 일본 군사기지의 근방에 있던 곳이었다. 여기서 위안부를 모의 마을로 나누어 보내 은 각기 따로 살고 잠자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이들을 「일을 했다. 식사는 위안 4개 그룹이 미치나 부근에 소에 마련된 식당에서 사 자기잡았으며 「표에이」진 먹어야 했다.

「반돈」半이상 日軍戰況불리

동남아시아의 새점령지 이 비슷한 방법들도 충원 됐고 42년 8월 20일경 란군

部隊별

여자들의 대다수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교육정도도 낮았으며 그들에게 예전의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즉 몸을 파는 일과 관련된 것」을 맡겼던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이 서명한 계약서에 의해 여자들은 군대 구획에 구속받게 되었고 가족의 부채를 갚아준 경우 그 액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일정기간 동안 「고용수」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44년 9월 6일 버마 송산언덕에서 미군이 포로가 된 韓國인 위안부들을 신문하고 있다.

위안소운영은 일본군대의 통제를 받았으며 관리가 더욱 엄격했다. 밀집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위안소의 입점표와 이용가격, 순번을 직접 정했다. 병사들은 위안소가 너무 붐비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고 자주 불평을 했다. 병사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은 군부대마다 특정 요일을 배정해 이용하게 했다. 예를들면 일요일은 군단사령부 월요일은 기갑부대 화요일 공병대 수요일은 신체검사날로 휴무 목요일은 의무부대 금요일은 포병대 토요일 수송대식이였다. 해당부대에서는 자기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 군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안소들이 적혀있

병사들은 신원과 직위를 확인된 뒤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 이들은 직위에 따라 이용시간도 달랐다. 사병은 이용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30분 동안, 군속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30~40분간, 장교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였으며 장교는 20분을 내고 발을 지날수도 있었다.

즈카미장군이다. 마루야마는 위안소를 늘 사용했으니 미즈카미장군도 여가를 찾아왔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치나가 함락됐을 때 마루야마는 도주했고 미즈카미는 미처 부하들을 철수시키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들을 술취한 사람과 다들 말 전선으로 떠날 병사들을 맞고 일이 가장 끔찍했다고 진술했다.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군들은 아무런 술에 취했을 때도 군사정보나 비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함께 퇴각하고 불잡힐 때까지 미치나그방의 전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現代 등 명목으로 도로 뜯겨 해지자 내팽개치고 도주 로 요일정해 「이용」 폭격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

대가 돈의 50~60%는

병을 앓기 위해 위안소운영자들에게 바쳤다. 한달 평균 1천5백엔 가량의 「별이카운데」 7백50엔가량을 도로 바친 셈이다. 그러나 위안부들이 식사

나 생필품들을 제공받던 대가로 터부니없이 많은 돈을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했으므로 생활은 매우 궁핍했다.

보건관리 일본군의 사가 1주일의 한 번씩 위안소를 방문했고 병이 난 위안부는 치료를 받거나 병원의 실려가기도 했다.

위안부들은 자신과 군인들의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각종 피임기구가 주어졌으며 병사자신이 군대에서 받은 피임기구를 가져오기도 했다.

일본군에 대한 반응 신분결과 일본군중 두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다. 하나는 미치나병영의 사령관 마루야마대령이고 하나는 중령부대를 보낸 미

위안소가 연합군의 폭격을 받았을 때 많은 위안부들이 죽거나 다쳤다.

체포경위 44년 7월 31일 밤 세 위안소(바쿠신도는 긴슈에 통합했다)의 위안부들과 군속들을 포함한 63명의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이라와디강을 건넜다.

이들은 와영마우근방에 도착해 8월 4일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들은 8월 7일까지 일본군을 따라다녔으나 소규모 전투를 계기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8월 10일까지 근처 빈집에 남아있다가 영남정교가 이끄는 카친(Kachin)군에 의해 체포돼 레도수영소로 보내졌다. 여기서 이 보고서의 기초가 된 신문이 행해졌다.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생포 사실을 알리는 전단이 이 지역에 뿌려질 경우 다른 위안부들의 목숨이 위협해질 것이라고 걱정들을 했다.

이들은 한국에 뿌려지는 전단들에 자신들의 체포소식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申然瑋〉



1944년 8월 14일 버마북부 미치나마을에 포로로 잡혀 있는 한국인 위안부들.